

전세계에 '직지' 위대함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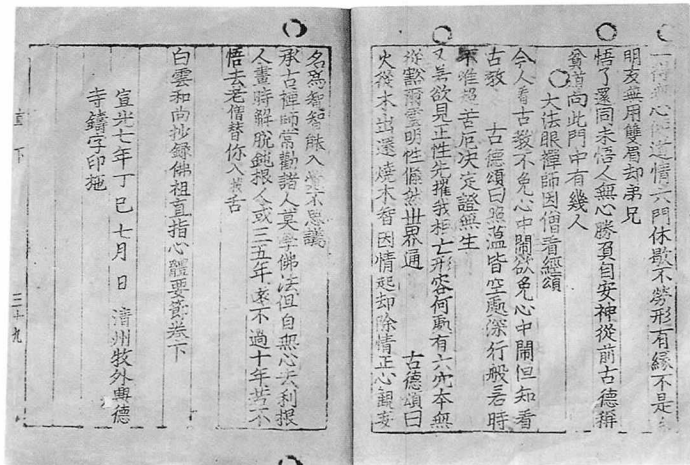
청주시, 인협 후원 직지축제 개최

오는 9월4일부터 7일까지 청주에서 대대적인 '직지' 축제가 열린다. 청주시 직지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한대수 청주시장)는 대한인쇄문화협회의 후원으로 오는 9월4일부터 4일간 청주 예술의전당과 고인쇄박물관 일원에서 '2003 청주직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돈음에서 펼침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직지가 2001년 유네스코의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됨을 기념하고 청주의 정신적 문화적 자산인 직지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며 직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세계기록문화유산특별전, 고려퍼레이드, 직지인형극 '5학년은 다 모여라', 학술 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진다.

한편 청주시는 직지를 세계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를 '직지 사랑의 축제' 기간으로 정하고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07년까지는 '직지 성장의 축제' 기간으로 설정하여 청주의 지역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관심과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축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또 2010년까지는 '직지 결실의 축제' 기간으로 정하여 직지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알리고 외국의 다양한 참여와 관심을 촉발시켜 청주를 지식형 학습문화도시로 결실을 맺는다는 복안이다.



직지심체요절이란

고려시대에 간행된 금속 활자본으로 유일하게 현재 전해 오고 있는 것이 바로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직지(直指)'다. 본서는 원래 상·하 두 권이었으나 상권은 전해 오지 않고 하권만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책은 프랑스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이 1901년에 발행한 '한국서지'의 부록에 금속 활자로 인쇄된 것이라고 처음 소개되었으나 그 실물을 접할 길이 없어 존재 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그러던 중 1972년 '세계 책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유네스코 주관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특별 도서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본 도서관에 근무하던 박병선 여사가 본 서를 전시회에 출품함으로써 처음으로 공개되어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책은 1887년 주한 프랑스 대리공사로 서울에 근무했던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가 수집해 간 많은 장서 속에 들어 있던 것으로, 그 뒤 도서 수집가인 앙리 베베르(Henri Vever)의 수증으로 넘어 갔다가 1950년 그가 사망하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어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본 서의 권말에는 '선광(宣光)' 7년 정사(丁巳) 7월 청주목외(淸州牧外) 흥덕사(興德寺) 주자인시(鑄字印施)라는 간기

가 적혀 있어 인쇄시기와 인쇄장소, 인쇄방법 등을 알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중 선광은 북원(北元)의 연호로 고려 우왕 3년(1377)에 해당되며, 이때 홍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어냈음을 분명히 밝혀 주고 있다. 또한, 이면에는 '연화(緣化) 문인(門人) 석찬(釋璨) 달잠, 시주(施主) 비구니(比丘尼) 묘덕(妙德)' 이라는 표시가 있다. 간기는 뒤에 중간(重刊)하면서도 원본의 기록대로 전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찰본에 있어 조연(助緣) 문인 시주 등은 대체로 올바르게 표시하고 있다.

석찬은 본 서를 지은 경한(京閑)의 제자로서 스승의 다른 찬술인 '백운화상어록'을 집록(輯錄)한 수제자이며, 본 서를 금속활자로 인쇄한 다음해 여주 취암사에서 다시 목판본으로 간행할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달잠도 석찬과 함께 취암사에서 그 어록을 간행하는 데 조연한 문인이며, 묘덕도어록의 개판은 물론 본 서를 목판본으로 간행하는 일을 전적으로 도와서 완성을 보게 한 인물이다. 이렇듯 조연 문인 및 시주가 바로 당대의 인물들이니 본서가 간기대로 1377년 홍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어낸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 책은 간기에 청주목의 교외에 있는 홍덕사에서 찍어낸 책이라고 되어 있으나 한동안 홍덕사의 정확한 위치를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러던 중 1985년 청주시 운천동 일대에서 택지를 조성하다가 금당지(金堂址)의 유구와 함께 '홍덕사(興德寺)'라는 명문이 새겨진 유물을 수습함으로써 비로소 그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현재 이 곳에는 청주고 인쇄박물관이 세워져 인쇄문화의 발상지임을 기념하고 있다.

<주제별 행사 내용>

구분	행사명	기간	장소
공식행사	개막식	9.4(목)	예술의전당 특설무대
	폐막식	9.7(일)	예술의전당 특설무대
	학습도시 청주 BOOK START	9.5(금)	예술의전당 특설무대
	직지찾기 전국 싸이클대회	8.27~9.5	직지의 거리 일원
	직지의 거리 지정선포식	9.6(토)	직지교 일원
전시행사	조선초기금속활자본 특별전	9.4~11.3	고인쇄 박물관 전시실
	세계기록유산 특별전	9.3~9.7	예술의전당 전시실
공연행사	직지인형극	9.4~9.6	예술의전당 소공연장
	품물총집합	9.6(토)	예술의전당 특설무대
	오페라 직지 공연	9.2~9.3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직지 무용공연	9.7(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참여행사	고려 퍼레이드	9.4(목)	청주시 일원
	직지 백일장 대회	9.4(목)	
	직지사생대회	9.5(금)	예술의전당 광장 일원
	직지서예대회	9.5(금)	
	직지 벽화그리기	8.10~9.4	홍덕초등학교 담장
	평생학습동아리 발표회	9.5(금)	예술의전당 특설무대
	직지 달맞이 놀이	9.5(금)	예술의전당 특설무대
	현장학습! 5학년은 다 모여라	9.4~9.6	고인쇄박물관 일원
	직지만물상	9.6(토)	예술의전당 광장 일원
	청주사랑 직지사사랑 라디오편어링	9.7(일)	청주시내 일원
	직지 체험마당	전기간	예술의전당 광장 일원
	학술행사	고인쇄문화학술대회	9.4(목)
직지 대강연회		9.4(목)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판매행사	우수도서 전시판매전	전기간	예술의전당 전시실
공모행사	직지와 청주 영상 콘테스트	8.10~9.5	예술의전당 특설무대

종이상식

종이 4×6판의 유래

종이의 4×6판은 일본에서 유래된 종이의 규격이다. 일본의 메이지 시대에는 영국에서 종이를 수입했는데 그 사이즈가 762×1091mm로 이전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던 규격인 미농판(272×394mm)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했다. 그래서 미농판의 8배가 되게 종이규격을 788×1091mm 사이즈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규격은 32매절하여 자투리를 제거하면 4寸2分×6寸2分의 책크기가 되었는데 훗날 4와 6만을 따서 부르기를 4×6판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종이의 결

펄프의 배열 형태에 따라 종목과 횡목으로 구분한다. 즉 종이 제조시 펄프섬유는 초기기의 진행방향으로 배열돼 결을 형성하게 되며 이 방향을 MD (MACHINEDIRECTION)라 하고, 이와 수직인 폭방향을 CD(CROSSDIRECTION)라고 한다. 종이는 결방향에

따라 물리적 성질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 예로 종이가 결방향에 평행하게는 쉽게 접히지만 직각 방향으로는 잘 접히지도 않고, 접히는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기도 하며,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쇄를 하거나 가공작업을 할 때, 종이의 결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종이의 사용방법이다.

책의 두께 계산법

책의 두께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은 '지중예 따른 평량별 두께×페이지수×1/2)+표지두께'를 하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문림제지 아트지 120g/㎡의 두께는 98±5μm이다. 표지를 제한 전체가 100페이지이라면 98×100×1/2=4900으로 대략 0.49cm가 된다. 참고로 평량별 두께는 각 제지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두께를 계산하기전 제지사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